

3000억 빚덩이 지우고 사라지는 F1

지원부서 명칭 ‘모터스포츠 담당관실’로 변경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전남도가 조직 명칭에서 ‘F1’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F1이 남긴 채무는 13년 뒤인 2029년까지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직 중 하나인 ‘F1대회 지원담당관실’ 명칭을 ‘모터스포츠 담당관실’로 바꾸는 내용의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담당관실은 지난 2010년 만들어졌지만 2014년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했다. 다만 명칭 변경 후에도 근무 인원은 준

국장인 담당관을 포함해 9명으로 유지된다. F1 대회가 열리지 않아 관련 업무는 사무분장에서 삭제하지만, 영암 F1 경주장이 올해만 280일 가동되고 한·중·일 국제 모터스포츠 행사를 총괄하는 기능도 유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데 F1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명칭은 바꾸되 위약금 협상이나 경주장 운영 등 기존 업무는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개최 포기로 F1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위약금 협상을 진행 중인 F1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F1 경주장 건설(2009년)과 취득(2011년)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848억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갚아야 하며, 이자만 538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까지 원금 1618억원과 이자 249억원 등 1867억원을 갚았고, 2029년까지 원금 1230억원과 이자 289억원 등 1519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13년간 매년 117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F1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F1 위약금 협상도 해를 넘길 예정이다. 양측 모두 ‘시간 끌기’

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결정될 위약금 역시 전남도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구 변경안에 따라 건강 증진과를 보건의료과로, 농업기술원 연구 개발국 농업경영연구소를 기술지원국 자원경영과로 바꾼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조사과를, 해양수산과학원에는 동부지부를 각각 신설한다. 전남도는 본청 조직 개편 외에 지난 5월 국비 27억원, 도비 70억원 등 모두 97억원을 들여 개최한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도 사실상 해산한다. 박람회 사무국에는 행사 당시 24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4명만 남아 박람회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미래 먹거리 찾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광주의 미래 먹거리사업 창출계획과 청년과 노년이 함께하는 라이프 플래닝 시스템 구축 전략을 논의하는 ‘광주 Active-Aging City 조성사업 포럼’이 2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윤정현 광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내년부터 ‘물 순환 선도도시’사업 본격화

2018~2020년 295억 투입
서구 상무지구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는 26일 내년부터 ‘물 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 순환이란 구름 생성·강수·유출·증발·침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체계이다. 물 순환 시스템이 손상되면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과 기상이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물 순환 선도도시 사업은 훼손된 물 순환 시스템 복원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건물·도로 등 기존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진 곳의 불투수면(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을 ‘저영향 개발기법’으로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투수면 비율은 27%로 전국 광역도시 중 3위이며, 현재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위 저하, 하천유지용수 부족, 하천 수질악화 및 홍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해 광주시가 1위로 뽑혔다. 광주시는 물 순환 선도도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에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물 순환 정책의 장기 비전과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광주시 전역의 물순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물순환 지도를 구축하고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물순환 중점관리지구 선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진숙 광주시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물순환 기본조례도 내년 1월에 공포한다. 조례에는 각종 개발 사업 시 물순환 관리 시설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강우 유출수 부담금 제도·물 순환 관리시설 설치 시 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물 순환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이 설정되면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에서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295억원(국비 207억원)을 들어 201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후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물 순환 체계 개선사업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투수성포장(보행자도로 등), 식생체류지(광장), 옥상녹화(학교·관공서), 나무여과상자(가로수) 설치 등이다.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것도 물 순환 체계의 손상 때문이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 구축 박차

내년 AMT센터 건립 추진

극장 등 6개 특화공간 운영

광주시가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디어아트 기반 조성의 핵심거점인 AMT센터(Art&Media Technology Center) 건립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거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AMT센터는 내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광주공원 앞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산책길과 극장, 2층에 연구센터와 아카이브실, 3층에 창작

지원 센터, 4.5층에는 창작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시는 AMT센터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홀로그램 극장 등 6개 특화공간도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단 조직체계를 완비하고 미디어아트 특화 6개 공간 공식개관, 8개국 9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참여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 개최를 통해 창의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에 지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선정

조사팀 신설 고충민원 298건 처리

전남도가 감사원 주관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국 공공기관 ‘민원처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매년 감사부서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평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기관을 엄선해 포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중요 사항만 직접 처리하고 사·군으로 이송했으나, 올해부터 고충 민원 전담조직인 ‘조사팀’을 신설해 347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298건을 직접 처리했다. 또 소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 서류 위주의 조사 방법에서 탈피해

민원 현황을 찾아 민원인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함께 만족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반복민원 발생을 예방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사전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해 올해 52건을 처리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도민과의 접점에서 고충·불편 사항을 꼼꼼히 듣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강진청자축제, 문체부 최우수축제 뽑혀

정남진물·7080총장축제 ‘우수’
보성다향·왕인문화제 ‘유망’

강진청자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7년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제 지평선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대표 축제 3개, 강진청자축제 등 최우수축제 7개 등 41개 축제를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우수축제 10개 가운데 정남진장흥물축제, 추억의7080총장축제 등 2개, 유망축제 21개 가운데 보성다향대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등 2개가 각각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7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등급에 따라 홍보마케팅 예산 등, 축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화천산천어축제 등 이미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 홍보마케팅과 해외 유명축제 수준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씹힘성이 좋은 고급횟감입니다.
- 초밥용 횟감으로 최고인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에는 기능성 성분이 EPA 및 DHA 등의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수산물을 많이 먹는 에스키모인, 일본인은 무병 장수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선 중에 많이 들어있는 EPA, DHA, 타우린 등의 기능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생선횟감으로 치는 광어보다 참송어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의 최고의 횟감인 전어와 지방 함량이 비슷합니다. 한편, 기능성 성분인 EPA 및 DHA는 전어의 1.5배, 도다리의 8배 높습니다. 따라서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를 먹으면 성인병 예방효과로 인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동왕의녹차 참송어 드시고 성인병예방과 백세건강하세요.~~



왕에게 전상하던 “하동 녹차”를 먹어 보면 참송어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하동군어류양식업연합회 / 하동녹차참송어영어조합법인

●구입·유통문의 | 055)883-9715